■ 민족문화연구 제89호(2020.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71-203.
http://doi.org/10.17948/kcs.2020..89.171

한국불교 기우제 연구*

한상길(韓相吉)**

목 차

1. 머리말
2. 기우제의 소의경전
3. 한국불교 기우제의 현황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불교의 기우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우제에 대한 고찰은 한국불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불교가 국가와 사회의 요청에 어떻게 부응하였는가를 살펴보는 의미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기우제는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기우제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에서 비롯된다. 즉 기우제는 가뭄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비정기적, 단발적으로 개설하였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만의 고유성이나 차별성을 드러내는 의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교의례로 정착하지 못

* 이 논문은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에서 2020년 6월 24일 주최한 호국불교 연구 학술세미나 '불교의례와 국가(1) : 국가 재난에 대한 불교의 의례적 대응'에서 발표한 후 수정・보완하였음.

**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

하였다. 불교 기우제는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맥락을 같이한다. 고려시대까지 불교의 성행 시기에는 기우제가 중시되면서 다양한 명칭으로 사찰은 물론 궁궐에서도 개설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오직 사찰에서만 가능하였다. 그것도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서야 진행할 수 있었다. 불교의례는 사상과 신앙 등 종교의 본질을 행위로 표출할 때 생명력을 지닌다. 그런데 기우제는 이러한 종교의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한국불교사의 한 전통으로만 남게 되었다.

주제어: 기우제, 기우도량, 불교의례, 금광명경도량, 법화경도량, 괘불, 흥천사.

1. 머리말

기우제는 농경사회에서 가뭄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었다. 가뭄을 비롯한 많은 기상이변은 말 그대로 하늘의 재앙이었고, 인간은 하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다양한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므로 기우제는 종교와 신앙, 지역과 신분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절차와 의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우제의 종류를 크게 무속식, 도교식, 유교식, 그리고 불교식의 네 가지로 구분할 만큼 많은 사례가 전한다.

이 글은 불교의 기우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듯이 불교는 한 민족의 사상과 신앙,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세시대까지 불교는 사상과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불교의 기우제 역시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런데 기우제에 관한 많은 연구 가운데 불교의 기우제에 관한 연구는 손꼽을 정도이다. 불교가 지닌 방대한 문화기반에서 기우제라는 비정기적이고 특수한 의례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우제에 대한 고찰은 한국불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불교가 국가와 사회의 요청에 어떻게 부응하였는가를 살펴보는 데 유의미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우제에 관한 불교경전을 통해 가뭄에 대처하는 불교적 해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여러 경전에서 기우에 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이 중 『대운륜청우경(大雲輪請雨經)』이 대표적으로 기우제의 소의경전이라 할 만하다. 이 경에 입각한 '운우기우제'의 개설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어서 고대, 고려, 조선시대까지의 사례를 일별하여 불교 기우제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기우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행하는 공공의례였다. 따라서 사례를 전하는 기록 또한 관찬 기록 일색이고, 설행 사실만을 소략하게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천 년 이상의 한국불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더니 일관된 경향성이나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저 각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기우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불교의 다양한 입체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기우제의 소의경전

한국불교의 기우제에서 사용하는 소의경전은 여러 종이 있다. 『대운륜청우경』, 『금광명경』, 『법화경』, 『금광명최승왕경』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전적으로 기우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 『대운륜청우경』이다. 여타의 경전은 부분적으로 기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즉 기우제의 대표적 소의경전은 『대운륜청우경』으로 흔히 『운우경』, 『청우경』으로 약칭한다.(이하 『운우경』으로 줄임)

『운우경』은 수(隋)나라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가 585년에 처음 번역하였다. 이를 통해 기우제의 조건과 제단을 장식하는 방법, 기우제에서 염송하는 다라니 등을 살펴본다. 붓다가 용왕궁의 대운륜전(大雲輪殿)에서 대비구와 보살, 그리고 수많은 대용왕(大龍王)에게 설법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여러 용왕이 묻고 붓다가 설법하는 형식이다. 먼저 기우의 조건에 관한 내용이다. 윤개용왕(輪蓋龍王)이 단비를 내려 모든 생물이 잘 자라고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

> 그대 대용왕이여, 만약 천신이나 사람 중에 큰 자비심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이러한 한량없고 끝없는 이익이 되는 일들을 얻는다. 그러므로 용왕이여, 신(身)·구(口)·의(意)의 3업(業)에 있어서 항상 저 큰 자비심을 행하여야 한다.
> 다시 용왕이여, 다라니가 있으니, 이것의 이름을 시일체중생안락(施一切衆生安樂)

이라고 한다. 그대 모든 용왕들이 이 다라니를 항상 독송하며 끊임없이 생각하여 받아 지니면, 모든 용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안락함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저 모든 용왕들이 안락함을 얻고 나서는, 곧 염부제에 때맞추어 단비를 내려 모든 나무・수풀・약초・곡식의 싹들이 잘 자라서 맛있는 음식물을 내도록 할 것이다."[1]

붓다의 대답은 '큰 자비심을 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큰 자비심의 위덕으로 3업을 행할 때 모든 중생이 안락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큰 자비를 행하는 주체는 천(天)이나 인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여 신분이나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한국의 기우제 사례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부당한 죄인 사면, 무연고 시신의 매장 등의 사전 조처들이 모두 이러한 큰 자비심의 실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기우제를 주관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와 기우의 행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주관자는 출가자의 경우 계행(戒行)이 청정해야 하고 만약 계를 어긴 일이 있다면 미리 7일간 참회해야 한다. 속인도 7일간 팔관재계를 지켜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관자는 하루 세 번 향탕수로 목욕하고, 청색 옷을 입는다. 오직 신선한 우유・쌀・과일・채소만을 먹는다. 대・소변 후에는 반드시 목욕한다. 기우제 자리에 올라갈 때는 먼저 시방의 모든 부처에게 예배하되,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면서 모든 부처와 보살, 천신과 용왕을 청한다고 하였다.

『운우경』에서는 기우 제단의 개설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먼저 사방 10m 가량의 도량에 사방 8m, 높이 30cm 정도의 단을 만든다. 단 중앙에 다시 높은 자리를 만들고 푸른 휘장을 두른다. 중앙 단에서 180cm 떨어진 사방에 소똥으로 용의 형상을 그린다. 도량의 사방에는 화병과 향로를 두어 장식한다. 또한 사방에는 3m 높이의 푸른 깃발 4개씩을 세운다고 한다. 끝으로 기우제에서 행하는 다라니 염송을 설명하였다. 즉 '진후분신용맹당다라니(震吼奮迅勇猛幢陀羅尼)'를 염송하면 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라니는 기근과 전염병, 비법(非法)의 혼돈, 별들의 변괴를 모두 물리친다고 한다.

---

1) 『대운륜청우경』,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 통합대장경, http://kabc.dongguk.edu. 이후의 『대운륜청우경』 내용은 모두 여기서 인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운우경』은 가뭄에 대처하는 불교적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우제를 행하는 자비의 마음가짐, 계를 철저히 지키는 몸가짐, 기우제에서 염송하는 다라니, 그리고 기우 제단의 혀끝과 장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기우제에서 『운우경』을 사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기우제에서 이 경을 강설하였다는 사례는 고려 1건, 조선 3건이 전한다. 다만 기우제를 '운우도량(雲雨道場)'으로 이름 붙인 몇 건의 사례에서 그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대운륜청우경』을 흔히 『운우경』으로 약칭하므로 운우도량은 '운우경에 입각한 기우도량'으로 풀이된다. 먼저 기우제에서 이 경을 강설했다는 사례이다.

> 경인일. 가뭄이 계속되므로 해당 관청에 명하여 임해원(臨海院)에서 이레 동안 『운우경』을 강설하게 하고 또 산악에 비를 빌게 하였다.[2]

1085년(선종 2) 4월 임해원에서 『운우경』을 강설하며 기우하였다는 기록이다. 기우제에서 『운우경』을 강설했다는 유일한 사례이다. 이하의 사례 3건은 『운우경』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기우제를 '운우도량'이라고 명명하여 『운우경』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먼저 이규보(1168-1241)는 기우제문을 쓰면서 '운우도량문'이라고 하였다.[3] 내용 중에 "이에 부처님의 자비에 의하여 널리 제도해 주심을 받아야 하겠으므로 승려를 소집하여 불경을 선양하나이다."[4]라고 하였다. 즉 기우제를 열어 '불경을 선양'한다고 하였다. 이규보는 제문을 '운우도량문'이라 하였으므로 여기서의 불경은 곧 『대운륜청우경』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1243년(고종 30) 5월에도 '운우도량'을 개설하였고,[5] 고려후기까지 이 명칭은 계속 이어져 1354년(공민왕 3) 5월에도 운우도량이 이어졌다.[6]

---

2) 『고려사』 세가 권10 선종 2년 4월.
3) 李奎報, 「望山樓上雲雨道場文」, 『동국이상국전집』 권39 佛道疏.
4) 李奎報, 「望山樓上雲雨道場文」, 『동국이상국전집』 권39 佛道疏. "玆扣等慈, 佇蒙洪濟, 召集塍衣之侶, 敷揚貝牒之編."
5) 『고려사』 세가 권23 고종 30년 여름 5월. "가뭄 때문에 전국의 참형과 교수형 이하 죄수들을 사면하고 내전에서 닷새 동안 운우도량을 열었다."

3. 한국불교 기우제의 현황

1) 고대의 기우제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시대까지의 불교 기우제 사례는 4건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1건만이 신라의 기우제이고 다른 3건은 일본의 사례이다. 3건은 일본에서의 기우제이지만 그 주관자는 한반도에서 건너 간 고구려, 백제의 승려들이므로 여기에 포함하였다. 모두 7세기의 사실로서 전혀 자료가 전하지 않는 삼국시대의 기우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례 3건이다.

① 석 혜관(慧灌)은 고(구)려국 사람이다. 수나라에 들어가 가상사(嘉祥寺)의 길장(吉藏)에게서 삼론(三論)의 종지를 받았다. 추고 33년 을유년(625) 봄, 정월에 본국에서 보내왔다. 원흥사(元興寺)에 머물게 하였는데 그해 여름 천하에 큰 가뭄이 들자 혜관을 불러 비를 빌게 하였다. 혜관이 푸른 옷을 입고 삼론을 강설하자 즉시 큰비가 내려 상하가 크게 기뻐하였다. 승정(僧正)으로 발탁하였다. 훗날 내주(內州)에 정상사(井上寺)를 창건하여 삼론종을 펼쳤다.[7]

② (684년) 7월. 이달부터 8월까지 가뭄이 들었다. 백제승 도장(道藏)[8]이 기우제를 지내자 비가 내렸다.[9]

③ (691년) 크게 기우제를 지냈다. 가뭄 때문이다. 20일 백제사문 도장(道藏)에게 기우제를 올리도록 명하였다. 오전을 넘기지 않고 천하에 고루 비가 왔다.[10]

위의 세 기록을 통해 한반도에서 건너간 승려들에 의해 일본의 기우제가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의 사례는 625년 무렵으로 가장 빠른 시기의 불교 기우제 기록이다. 혜관이 원흥사에서 '삼론'을 강설하며 기우제를 올렸다고 한다.

---

6) 『고려사』 세가 권38 공민왕 3년 5월. "康安殿에서 운우도량을 여는 한편 산천의 신을 모신 神社와 절에서도 기도를 올리도록 하였다."
7) 이능화, 『역주 조선불교통사①』 동국대 출판부, 2010, 123-124면.
8) 道藏은 백제 출신으로 일본에 가서 『成實論疏』 16권을 지어 성실종을 전하였다. 俱舍·三論에 능통하였다. 90세 가까운 나이에 南京에서 입적하였다.
9) 『일본서기』 권제29 천무천황 12년 7월.
10) 『일본서기』 권제30 지통천황 2년 7월 20일.

삼론은 중국 삼론종의 세 가지 저술이다. 용수(龍樹)의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 제바(提婆)의 『백론(百論)』이다. 삼론종은 『열반경』의 여래장사상을 수용하여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사상을 특화시켰다고 한다.[11]

이러한 삼론의 사상과 기우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알 수 없지만, 혜관은 일본에서 삼론종을 펼칠 만큼 삼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지녔다. 즉 기우제의 일반적인 소의경전, 『운우경』이 아니라 자신이 중시하는 삼론을 강설하며 기우제를 개설한 것이다.

②와 ③은 백제 출신의 도장이 684년과 691년에 개설한 기우제이다. 두 차례의 기우제가 모두 성공하여 비가 내렸다고 하였다.

다음은 753년에 통일신라에서 개설한 사례로 한국불교 최초의 기우제이다.

현유가 해화엄(賢瑜伽海華嚴)

> 경덕왕 천보(天寶) 12년 계사(753) 여름에 가뭄이 심하니 대현(大賢)을 대궐로 불러들여 『금광경』을 강(講)하여 단비를 빌게 하였다. 어느 날 재를 올리는데 바라를 열어 놓고 한참 있었으나 공양하는 자가 정수(淨水)를 늦게 올리므로 감리(監吏)가 꾸짖었다. 이에 공양하는 자가 말했다. "대궐 안 우물이 말랐기 때문에 먼 곳에서 떠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대현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왜 진작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낮에 강론할 때 대현은 향로를 받들고 잠자코 있으니 잠깐 사이에 우물물이 솟아 나와서 그 높이가 일곱 길이나 되어 찰당(刹幢)의 높이와 가지런하게 되니, 궁중이 모두 놀라서 그 우물을 금광정(金光井)이라 하였다. 대현은 일찍이 스스로 청구사문(靑丘沙門)이라 일컬었다.[12]

신라 유가종의 대현(大賢, 太賢)이 궁궐에서 지낸 기우제 이야기이다. 비를 내리게 한 신비담이 소재인데 기우제의 사실은 "경덕왕이 753년에 대현을 궁중에 불러 기우제를 지내도록 하자, 그가 『금광경』을 강설하며 기우하였다."라는 내용뿐이다. 여기서 『금광경』을 강설하였다는 기록이 주목된다. 『금광경』은 『인왕경』, 『법화경』과 함께 호국의 이념을 지니고 있어 '호국삼부경'이라

11) 고익진, 『한국 고대 불교 사상사』, 동국대 출판부, 1989, 122면.
12) 「현유가해화엄」, 『삼국유사』 의해 제5.

부른다. 『금광경』「사천왕품」에서 사천왕은 세상의 법왕이 되어 법으로써 세상을 수호한다고 설한다. 즉 정법을 행하는 호국의 수호자 역할이다. 호국의 대표적 경전 『금광경』을 기우제의 소의경전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의 불교 기우제

고려시대 국가에서 진행한 도량과 법석, 재 등의 불교행사는 83종, 1,200회 이상이었다.[13] 이러한 불교의례의 목적은 국태민안이었다. 불교행사는 불교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적 안심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에 대응하는 실천 신앙행위로서 고려사회의 유지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한다.[14]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식 기우제가 개설되었다. 가뭄의 위기를 맞아 국가에서는 기우제를 개설하였고, 국왕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죄인을 사면하고, 숙식을 간소하게 하며, 노인을 봉양하고, 사원에서 기도하였으며, 산천신령들에게도 제사하였다.

991년(성종 10)의 기우제 사례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7월 기유일.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 "늦여름이 이미 다 지나고 초가을도 중순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 마음속 깊이 근심이 쌓인다. 정치가 잘못된 탓인지, 상벌이 공정하지 못한 탓인지 알지 못하겠도다! 감옥을 열어 죄수들을 풀어주었으며, 내가 정전(正殿)을 피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면서 부지런히 사원에서 기도하며 산천의 신령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도 비가 올 조짐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햇볕만 쨍쨍 내리쬐고 있다. 내가 부덕한 탓에 이런 큰 가뭄을 만나게 되었으니 노인을 봉양하는 은혜를 널리 베풀어 농사에 대한 나의 우려를 나타내고자 한다. 옹희(雍熙) 3년(986) 노인들에게 쌀과 베를 지급했던 전례에 따라, 담당 관청에서는 개경에 거주하는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여든 살 이상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라."[15]

---

13)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부, 1994, 316-331면;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35면.
14) 김형우, 앞의 글, 167-168면.
15) 『고려사』 세가 권3 성종 10년.

가뭄은 식량의 생산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였으므로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와 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따라 신분과 지역, 종교와 신앙을 초월하여 다양한 기우제를 설행하였다. 고려의 기우제는 유교식, 불교식, 무속식, 도교식으로 구분되듯이[16] 모든 종교와 신앙의 기원의례가 동원되었다.

불교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구나 국가불교라고 규정할 정도였으므로 불교는 고려 전 기간에 번성하면서 호국불교의 면모를 발휘하였다. 즉 가뭄에 대처하는 불교의 대처 방안은 기우제였다. 고려시대 불교 기우제는 60회 이상이 확인된다.[17] 사례는 다양하지만 『고려사』에 전하는 불교 기우제의 기사는 대부분 짤막한 사실 기술뿐이다.

① (1085년) 5월 갑인일. 건덕전에서 금강명경도량을 7일 동안 열고 비를 빌었다.[18]

② (1151년) 7월 갑진일에 문반 4품 이상과 무반 3품 이상을 불러 보제사에서 오백나한재를 베풀고, 기우제를 올렸다.[19]

③ (1243년) 5월. 가뭄 때문에 전국의 참형과 교수형 이하 죄수들을 사면하고 내전에서 닷새 동안 운우도량을 열었다.[20]

④ (1373년) 여름 4월 신묘일. 가뭄이 계속되자 시장을 옮겼다. 강안전에서 인왕도량을 이레 동안 열고 하늘의 변괴를 없애 달라고 기도하였다.[21]

이와 같이 간단하게 기우제의 장소와 도량의 명칭, 기간만을 적었다. 기우제의 진행 절차나 의식, 기도문 등에 관해서는 전하는 자료가 거의 없다. 일

16) 채미희, 「고려시기의 국행 기우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5, 12-34면.
17) 채미희는 『고려사』 세가편에서 모두 190회의 기우제를 탐색하고, 유교적 기우제는 86회, 불교식 기우제는 55회, 무속적 기우제는 30회, 도교식 기우제는 19회라고 하였다. 앞의 글, 14면. 여기에 각종 문집과 금석문 등에 보이는 사례를 포함하면 60회 이상이 된다.
18) 『고려사』 세가 권10 선종 2년.
19) 『고려사』 세가 권17 의종 5년.
20) 『고려사』 세가 권23 고종 30년.
21) 『고려사』 세가 권44 공민왕 22년.

상적으로 행하는 상시 의례가 아니라 비상시에 서둘러 개설하게 되므로 정형화된 제의(祭儀)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기우제를 행하는 도량, 재의 명칭도 매우 다양하여 일관된 흐름이나 경향성을 헤아리기 어렵다. 다만 다양하게 전하는 사례를 통해 기우제의 현황과 특성을 이해하는 정도이다.

고려의 기우제에 나타나는 특성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기우제의 명칭이다. 기우제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목적을 지녔지만 다양한 명칭으로 전개되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명칭에 따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법화경』과의 연관성이다. 『법화경』은 호국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널리 활용되면서 기우제에서도 중시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경행(經行)' 기우제이다. 경행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경전을 독송하며 기우하는 의식이다. 기우제 사례는 대부분 국가가 주도하였다. 사찰을 정하고 누가 어떤 도량, 어떤 재로 진행할 것인가를 모두 지시하였다. 그런데 경행은 민간의 자발적 행사이다. 이를 통해 고려 기우제의 한 특징을 보게 된다.

(1) 기우제의 명칭

고려시대 불교 기우제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금광명경도량(금광도량, 금강명경도량, 금광경도량, 금경도량), 화엄경도량, 인왕도량, 반야도량, 나한재, 재승(齋僧), 용왕도량, 운우도량, 공덕천도량, 기우도량 등 14개 이상의 다양한 이름으로 설행하였다. 명칭이 확인되는 기우제를 등장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22]

■ 금광경도량

① 문종 2년(1048) 5월에 날씨가 크게 가물고 냉해가 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비가 내리기를 희망하였으나 소득이 없었다. 백신(百神)에게도 기우제를 지냈지만 영험이 없었다.[결락] 이 무렵 [慧炤]국사께서는 문덕전(文德殿)에서 8권본 『금광명경』을 강설하고자 손으로 은도금 향로를 들고 서서히 상왕(象王)의 걸음걸이로 연좌(蓮座)에 올랐다. 사자(獅子)의 높은 음성으로 제1권을 아직 다 설하기도 전에 사방에 구름이 덮이더니 소나기가 쏟아져 골고루 싹을 적시어 밭에 심은 농작물이 마치 손으로 뽑아 올리듯 자랐다. 임금께서 밀사(密

22) 운우도량은 앞의 2장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使)[결락]로 하여금 차와 향을 보내 위로하고 앙모(仰慕)하는 편지를 보냈다.[23]

② 문종 6년(1052) 6월 을해일. 문덕전에서 금광도량을 개설하고 비를 빌었다. 큰비가 내렸다.[24]

③ 선종 2년(1085) 5월 갑인일. 건덕전에서 금강명경도량을 7일 동안 열고 비를 빌었다.[25]

④ 선종 4년(1087) 4월 을사일. 건덕전에서 7일간 금광경도량을 베풀고, 기우제를 올렸다.[26]

⑤ 숙종 원년(1096) 5월 무신일. 건덕전에서 금광경도량을 베풀고 비를 기원하였다.[27]

⑥ 인종 18년(1140) 윤6월 정해일. 금명전에서 금경도량을 열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28]

이상의 금경도량, 금광도량, 금광경도량, 금강명경도량 등은 모두 『금광명경』에 입각한 도량이다. '금경', '금광경', '금강명경'등은 모두 『금광명경』의 약칭으로 『법화경』, 『인왕경』과 함께 불교의 호국사상을 대표한다. 『금강경』을 흔히 '금경'으로 약칭하는 사례가 있지만 고려 도량에서의 '금경'은 『금광명경』을 가리킨다. 또한 금강명경도량에서 '금강명경'이라는 경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시 『금광명경』의 오기이다.[29] 금광명경도량은 고려 전 기간에 26회 이상 설행되었는데 주로 기우와 소재(消災)가 목적이었다.

---

23) 「죽산 칠장사 혜소국사탑비문」,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2』,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5, 322-323면.
24) 『고려사』 세가 권7 문종 6년.
25) 『고려사』 세가 권10 선종 2년.
26) 『고려사』 세가 권10 선종 4년.
27) 『고려사』 세가 권11 숙종 원년.
28) 『고려사』 세가 권17 인종 18년.
29) 김상현, 「고려시대의 호국불교연구—금광명경신앙을 중심으로」, 『학술논총』 제1집, 단국대, 1976, 209면.

■ 화엄경도량

① 문종 37년(1083) 가을 7월 계축일에 백관들이 흥국사에서 화엄경도량을 5일간 개설하여 바람과 비가 고르고 순조롭기를 기원하였다.[30]

② 국가적으로 수해와 가뭄 등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왕사를 청하여 국리민복을 비는 법요행사를 열었는데 왕사는[元景王師] 항상 『화엄경』을 독송하였다.[31]

고려의 화엄경도량은 『화엄경』을 외며 강독하고 보현보살이 세운 10대원(大願)을 되새기며 참회하는 의식이었다. 고려 후기에 성행한 각종 신중도량도 『화엄경』에 바탕을 둔 화엄신중신앙의 일환이었다.[32] 몽고의 침입으로 국난이 극심하였던 고종대에 왕은 화엄신중도량을 17회나 개설하기도 하였다. 원경왕사(元景王師) 낙진(樂眞, 1045-1114)은 수재와 가뭄을 물리치는 행사에서 항상 『화엄경』을 독송하였다고 한다.(사례 ②) 1102년(숙종 7) 4월에는 송충이의 해를 막기 위해 『화엄경』을 외는 의식을 거행한 일도 있었다.[33]

■ 인왕도량

① 숙종 6년(1101) 4월 을사일. 문덕전에서 인왕도량을 열고 비를 빌었다.[34]

② 공민왕 22년(1373) 4월 신묘일. 가뭄이 계속되자 시장을 옮겼다. 강안전에서 인왕도량을 7일 동안 열고 하늘의 변괴를 없애 달라고 기도하였다.[35]

인왕도량은 『인왕경』에 입각한 의식이다. 『인왕경』은 인덕을 갖춘 제왕이 반야바라밀의 도를 행하면 만민이 안락하고, 국토가 평안하다는 내용을 지닌 대표적인 호국경전이다. 일찍이 613년(진평왕 35)에 황룡사에서 『인왕경』에 입각하여 인왕백고좌도량을 개설한 일이 있었다.[36]

---

30) 『고려사』 세가 권9 문종 37년.
31) 「합천 반야사 원경왕사 비문」,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4 고려편 3』,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90면.
32) 홍윤식, 「불교행사의 성행」, 『신편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2002, 174-175면.
33) 『고려사』 세가 권11 숙종 7년.
34) 『고려사』 세가 권11 숙종 6년.
35) 『고려사』 세가 권44 공민왕 22년.

고려의 인왕도량은 호국불교를 대표하는 의례로 성행하였다. 1023년(현종 11)에는 궁중에 1백 개의 사자좌(獅子座)를 갖추고 1백 명의 법사를 청해 『인왕경』을 외는 인왕백고좌도량을 열었다.[37] 이후 격년제로 거행하는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고, 1157년(의종 11) 이후에는 3년제로 변화하였다. 인왕도량으로 기우제를 개설한 사례는 2건만 확인되지만 각각 1101년과 1373년의 사실이었음을 보면, 인왕도량은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반야도량

예종 원년(1106) 가을 7월 경인일. 회경전에서 반야도량을 개설하고 왕사 덕창(德昌)을 불러 불경을 강하고 비를 빌게 하였다.[38]

반야도량은 『반야바라밀다경』을 강설하는 행사이다. 고려의 반야도량은 모두 21회로 화엄법회, 법화도량, 능엄도량 등의 경전 도량 중 가장 많이 설행되었다. 반야경 독송의 공덕으로 천변이나 질병을 물리치는 등의 현세이익적 목적으로 설행되었다.[39] 1102년(숙종)에는 송충이의 해를 막기 위해 2천 명의 승려들이 네 패로 나뉘어 개경 주변의 산을 돌며 『반야경』을 독송한 일이 있었다. 또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 반야경도량을 열기도 하였다.[40]

■ 나한재

① 예종 16년(1121) 6월 경자일. 모든 관리에게 명해 나한재를 열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였다.[41]

② 의종 5년(1151) 7월 갑진일. 문반 4품 이상과 무반 3품 이상을 불러 보제사에서 오백나한재를 베풀고, 기우제를 올렸다.[42]

---

3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35년.
37) 『고려사』 세가 권4 현종 11년 5월.
38) 『고려사』 세가 권12 예종 원년.
39) 김형우, 앞의 글, 127-128면.
40) 『고려사』 세가 권13 예종 4년 4월; 권14 예종 15년 8월.
41) 『고려사』 세가 권14 예종 16년.
42) 『고려사』 세가 권17 의종 5년.

나한재는 16나한 또는 오백나한을 공양하여 찬탄하는 법회이다. 공양의 대상에 따라 16나한재와 오백나한재로 진행되었다. 나한재는 29회의 개설 사례가 전하는데 모두 궁궐이 아닌 사찰에서 진행되었다.[43] 나한상이 봉안되어 있는 사찰에서 거행하는 의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한은 구름 속에 머문다는 '운거나한(雲居羅漢)'의 의미에서 비를 상징한다고 한다.[44]

■ 재승

인종 4년(1126) 5월 경진일. 문무백관들을 시켜 승려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齋僧]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였다.[45]

재승(齋僧)은 승려에게 재식(齋食)을 베푸는 행사, 반승(飯僧)이다. 초기에는 단순히 승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공덕이 인정된다고 믿었으나, 나중에는 승려에게 법을 베풀어 받았으므로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상관관계에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수많은 반승이 진행되었고, 그 규모도 매우 성대하였다. 주로 인왕백고좌도량 등의 호국법회와 불탄일, 국왕 생일 등의 경축행사, 장경도량, 그리고 기신도량・우란분재 등의 추모행사 후에 반드시 뒤따랐다.[46] 기우제를 주관하는 승려들을 위해 반승하였다는 유일한 사례이다.

■ 용왕도량

의종 5년(1151) 가을 7월 임인일. 정주(貞州)의 배 위에서 용왕도량을 베풀고, 7일간 기우제를 올렸다.[47]

용왕도량은 물을 관장한다는 용의 힘으로 기우를 발원하는 의식이다. 그런데 『고려사』에 전하는 용왕도량이 불교식 기우제인지 분명하지 않다. 인도의 용신앙은 불교로 계승되어 부처와 불법을 호위하는 호불신(護佛神), 호법신(護

43) 김형우, 앞의 글, 156면.
44) 문상련(정각), 「묘지명을 통해 본 고려의 경전신앙」,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6권 1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20, 13면.
45) 『고려사』 세가 권15 인종 4년.
46) 홍윤식, 앞의 책, 183-186면.
47) 『고려사』 세가 권17 의종 5년.

法神)으로 변용되었다.[48] 그런데 용신앙은 불교만이 아니라 도교와 무속신앙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고려시대 무속신앙의 기우제도 상당수 개설되었고, 기우제를 연 장소가 궁궐이나 사찰이 아닌 선박이었다는 점에서 무속의 기우제일 가능성도 있다.

■ 공덕천도량

고종 37년(1250) 5월 정축일. 본궐에서 왕이 친히 공덕천도량(功德天道場)을 열고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다.[49]

공덕천도량은 『금광명경』의 「공덕천품」에 근거한 도량이다. 공덕천을 공양하고 염송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기본 성격은 신중도량과 같다. 고려시대에 13회가 설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8회가 몽고의 침입에 따라 강화로 천도한 시기(1232-1270)에 열렸다. 외침을 물리치려는 호국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50] 1250년의 기우제 역시 이 시기로서 당시에 가장 성행하던 공덕천도량 의식으로 기우제를 진행하였다고 보인다.

■ 기우도량

충목왕 2년(1346) 5월 임진일. 왕이 내전에서 기우도량을 친히 열었다.[51]

기우도량은 '비를 기도하는 도량'이라는 뜻의 일반명사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기우제에 등장하는 14개의 각종 도량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설행 사실을 전하면서 장소와 도량・재의 명칭, 기간 정도만을 전할 뿐이다. 그러므로 고려 기우제의 전반적인 의식이나 의례절차 등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사실 기우제는 정기적인 의례나 행사가 아니므로 규범화된 의례와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 보인다. 가뭄이 닥쳤을 때,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단발성 행사이기 때문이다. 기우제의 소의경전인 『운우경』이 존재하

48) 김현정, 「조선후기 사찰건축의 용신앙 의장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1, 10-12면.
49) 『고려사』 세가 권23 고종 37년.
50) 홍윤식, 앞의 책, 179면.
51) 『고려사』 세가 권37 충목왕 2년.

였지만, 가뭄 때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경전이므로 널리 유통, 보급되지도 않았다.[52] 오히려 『금광명경』과 『금강경』, 『법화경』과 『인왕경』 등 일상적으로 수지, 독송하던 경전에 근거한 각종 도량을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불교 기우제의 특징은 정형화된 의례가 없다는 점이다. 비를 비는 동일한 목적인데 14개 이상의 각종 도량과 재가 공존하였다. 즉 당대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도량과 재를 때에 따라 적용하였고, 도량과 재가 아니라 그저 어느 절에서 기우하였다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2) 법화경과 기우제

고려 기우제와 『법화경』과의 관련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3건 전한다.

① 숙종 6년(1101) 4월

왕이 일월사(日月寺)에 행차하여 금자로 쓴 『묘법연화경』의 완성을 경축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 왕비 및 태자와 더불어 절 뒤 언덕에 올라 술자리를 마련해 즐기려고 하자 어사대에서 간언하였다.

"한창 농사철에 가뭄이 극심한데, 만약 여기서 주연을 즐기신다면 누가 전하더러 백성의 아픔을 같이하는 군주라 하겠습니까?"

이에 왕이 포기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감회를 시로 읊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은 이러하였다.

"부처님 계신 절 찾아보고 전생 소원 이루었고 정성 다해 좋은 비 내리기 기도 드렸네."[53]

② 예종 10년(1115) 그해에 날이 크게 가물어 장령전에서 법회를 열어 비 내리기를 빌었는데, 우리 스님[敎雄]과 대선사 사선(嗣宣)에게 명하여 주반(主伴)이 되게 하고 『묘법연화경』의 6비(六比)를 연설하여 권교(權敎)와 실교(實敎)에 대한 근원이 훤하게 마치 얼음처럼 의심이 녹아서 비로소 한계가 없어졌다. 예종께서도 법문을 듣고 기꺼워하여 첩가사(貼袈裟) 각 한 벌을 하사하고, 장경도량을 열어 다시 자색가사를 하사하였다.[54]

---

52) 『대운륜청우경』은 고려대장경에 포함되었지만,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시스템〉 등을 검색해보면 조선시대에는 간행된 사례가 없다.

53) 『고려사』 세가 권11 숙종 6년.

54) 「국청사 묘응대선사 교웅 묘지명」, 이지관 역주, 앞의 책, 1996, 248-249면.

③ 인종 18년(1140) 개성지방이 크게 가물었다. 왕이 스님[敎雄]을 일월사(日月寺)로 초빙하여 『묘법연화경』을 강설하여 비를 빌게 하였다. 그리하여 「약초유품(藥草喩品)」 가운데 일지일우(一地一雨)와 삼초일우(三草一雨)의 비유를 강설하는 순간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55]

①은 금자 『묘법연화경』(이하 『법화경』으로 통칭)의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에 국왕이 참여하여 기우하였다는 사례이다. 사례 ②와 ③은 『법화경』을 독송하며 기우하였다는 이야기인데 묘응대선사(妙應大禪師) 교웅(敎雄, 1076-1142)의 비문에 전한다.

②에 등장하는 '법화경의 6비(六比)'는 「비유품(譬喩品)」의 일곱 가지 비유 중 여섯 번째, '상투 보석의 비유[髻珠喩]'이다. 전륜성왕이 오직 자신의 후계자에게만 상투 속의 하나밖에 없는 보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붓다가 우리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법화경』으로 모든 가르침을 베푼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사례 ③의 「약초유품」의 '일지일우(一地一雨)'는 "비록 한 땅에서 자라고 한 비가 적시어도 모든 초목에는 각각 차별이 있다.[雖一地所生, 一雨所潤, 而草木各有差別.]"는 구절에서 유래한다.

『법화경』은 호국삼부경의 하나로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널리 애용되었다. 고려불교에서도 『법화경』 신앙은 꾸준히 이어졌다. 주로 '법화예참',[56] '법화회',[57] '법화도량'[58]이라는 이름으로 참회수행, 치병, 경찬법회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왕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법화결사'를 결성하여 염불수행을 하기도 하였다.[59] 『법화경』의 이러한 대중성은 기우제로 이어졌다. 특히 「비유품」의 초목에 관한 이야기는 비와 직결되어 있었으므로 기우제의 독경 내용으로 더할 나위 없었을 것이다.

55) 「국청사 묘응대선사 교웅 묘지명」, 같은 책, 249-250면.
56) 『고려사』 세가 권10 선종 9년 6월.
57) 『고려사』 세가 권20 명종 10년 6월.
58) 『고려사』 세가 권29 충렬왕 8년 7월.
59) 林椿, 「書蓮花院壁」, 『서하선생집』 권2.

(3) 경행과 기우제

> 예종 원년(1106) 6월 기축일. 왕이 장령전에서 승려 담진(曇眞)을 시켜 선(禪)을 설법하고 비를 빌게 하였다. 당시 나라에 거리를 돌며 경행(經行)하는 일이 크게 유행하였다. 개경 5부의 백성들이 이를 본받아 각각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 걸어가면서 독경을 했는데 이 행렬이 대궐의 서쪽 동네에 이르자 때맞추어 비가 내렸다. 이에 왕이 쌀과 비단을 내려주고 다시 거리에서 독경하도록 하였다.[60]

경행은 1046년(정종 12) 처음 시작하였다. 정종이 당시 시중 최제안(崔齊顔, ?-1046)을 시켜 구정(毬庭)으로 가 분향한 후 불경을 메고 거리를 순행하는 가구경행(街衢經行)을 거행하게 하였다.[61] 행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개경의 거리를 세 방면으로 나누어 각각 채색한 누각 모양의 들 것에 『반야경』을 넣고 행진한다. 승려들은 법복 차림으로 불경을 외면서 걸어가고 감압관(監押官)도 공복차림으로 따라가며 거리를 순행하다. 그 뒤에 백성들이 불경을 따라 외며 행렬에 참여한다. 이는 백성들의 복을 비는 행사이므로 경행(經行)이라 이름 지었으며, 그해 이후 관례적으로 거행되었다고 하였다.

경행이 시작된 지 60년이 지난 1106년, 앞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경행은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그해 5월부터 계속된 가뭄은 6월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국왕은 건덕전에서 금강경도량을 설행, 기우하였고, 법운사(法雲寺)에서도 비를 빌었다. 또한 장령전에서 담진에게 선(禪)을 설법하고 비를 빌게도 하였다. 극심한 가뭄이었는데 백성들이 경행을 시작하여 대궐 서쪽에 이르자 때마침 비가 내렸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 불교 기우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우제는 고려 전 기간에 걸쳐 60회 이상 시행되었다. 개설 장소는 궁궐이 절반 이상이고, 사찰에서의 기우제는 모두 23회가 확인된다.[62] 기우제를 개설한 주요 사찰은 흥국사・보제사・법운사・영통사・묘통사・현성사・일월사 등이다. 고려

60) 『고려사』 세가 권12 예종 원년.
61) 『고려사』 세가 권6 정종 12년 3월 신축일.
62) 채미희는 사찰에서의 기우제를 22건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1140년(인종 18)의 일월사 사례 1건을 포함하면 모두 23건이다. 채미희, 앞의 글, 19-22면.

전기에는 흥국사・보제사・법운사에서 대부분의 사찰 기우제가 시행되었다. 후기에는 주로 보제사에서 시행되었고, 이름이 전하지 않는 다수의 사찰에서도 진행되었다.

기우제를 지내는 기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가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하루에 마치는 경우도 있었고, 3일, 5일, 7일 등으로 지속되기도 하였다. 기우제를 지내는 의식과 의례 등에 관해서는 전하는 자료가 거의 없다. 앞서 보았듯이 기우제는 14개 이상의 다양한 도량과 재의 명칭을 빌어 진행하였으므로 각각의 도량과 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기우제의 의식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김부식의 「금광명경도량소(金光明經道場疏)」이다.

> 금년 봄에 비가 조금 오고는 5개월이 지나도록 항상 볕만 쬡니다. (…) 임금과 신하가 착하지 못한 인연으로, 국가가 다난함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심에 의탁하여 우리 사람들 사이에 한결같은 근심을 구제받아야 하겠습니다. 비전(祕殿)을 청소하고 공손히 법연(法筵)을 열어서 옥같이 순수하고 맑은 부처님의 상(像)에 예배하며, 황금 같은 부처님 말씀의 오묘한 이치를 강연합니다. 재(宰)・추(樞) 양부(兩府)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온몸을 다하여 예를 올리며, 여러 사람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표하오니, 지혜로우신 밝음으로 정성스러운 충심(衷心)을 굽어살피실 줄 압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신의 조화를 빌어서 가뭄이 사라져 메마른 붉은 땅이 되는 재난이 없게 하시고, 우사(雨師)를 고무시켜 하늘로부터 비 내림이 고루 흡족하게 하소서. 모든 재앙은 소멸되고 유리한 것은 모두 발흥하여 백성들은 부유하고 장수하는 길로 돌아가고, 나라에는 풍부한 수확물의 축적이 있게 하소서.[63]

기우제를 금광명경도량 의식으로 개설하면서 국왕을 대신하여 쓴 소문이다. 이 중에서 의식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비전(祕殿), 즉 기우제를 올리는 전각을 청소하고 공손히 법연(法筵)을 연다. ② 불상에 예배한다. ③ 경전의 오묘한 이치를 강연한다. ④ (국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온몸을 다하여 예를 올리며, 기우의 기도를 올린다.

---

63) 김부식, 「금광명경도량소」, 『동문선』 제110권 소.

이와 같은 의례가 기우제의 일반적인 절차였을 것 같다. 궁궐에서 국왕이 참석하는 경우이지만 사찰에서도 대체로 이 과정으로 진행하였을 것이다. 전각을 정결히 청소하고 법회를 여는데 먼저 불상에 예배하고, 법사가 불법을 설법한다. 참여자 모두가 정성을 다해 예를 올리고, 기우의 기도문을 올린다고 하였다. 기우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므로 기도문 낭독에 가장 역점을 두었을 것이다. 한편 '부처님의 오묘한 이치를 강연'한다는 사실에서 법문의 내용은 도량의 형식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즉 기우제 도량의 다양한 형식, 즉 금광명경도량, 화엄도량, 법화도량, 반야도량, 인왕도량 등에 따라 그에 맞는 법문을 설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조선의 불교 기우제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기우제는 1,142회가 개설되었다.[64] 고려시대 기우제가 190회 정도였음에 비하면 월등히 많다. 역사 기록의 전문화, 세밀화에 따라 설행 사실이 꼼꼼하게 기록된 결과이지만 가뭄의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방책은 여전히 기우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많은 사례에 기반하여 조선시대 기우제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다양한 시각과 연구방법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불교식 기우제에 관한 연구는 단 1편뿐이다.[65] 그리고 기우제가 자주 개설되었던 흥천사의 사격을 조명하면서 기우제를 언급한 경우와[66] 괘불탱을 고찰하면서 기우제를 설명한 사례가[67] 있을 뿐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시대 불교는 억불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쇠퇴를 거듭하였으므로 불교식 기우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대부분의 기우제가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행행사였으므로 당연한 귀결이었다.

---

64) 김용헌, 「조선왕조실록에서 본 조선시대의 강수 기우제와 기청제, 우전, 서리 및 안개」,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1996, 4면.
65) 김용조, 「조선전기의 국행기양불사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9.
66) 백순천, 「조선초기 흥천사의 조영과 역할」,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1, 23-28면.
67) 이용윤, 「불사성공록을 통해 본 남장사 괘불」, 『상주 남장사 괘불탱』,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6, 2002; 이영숙, 「조선후기 괘불탱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3.

(1) 불교 기우제의 배경

조선의 불교 기우제는 건국 초부터 1485년(성종 16)까지 설행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40여 건의 기우제 설행 사례가 전한다. 이를 통해 조선의 불교기우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숭유억불의 사회에서 불교의 기우제가 어떻게 시행될 수 있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옥천군(玉川君) 유창(劉敞) 등을 북교(北郊)·백악(白岳)·목멱(木覓)·양진(楊津)·한강 등에 보내어 기우제를 행하였다. 승도 1백 명을 흥천사의 사리탑에 모아서 조계종 판사 상형(尙形)에게 향을 받들어 비를 빌게 하였다. 또 여러 무당에게 한강에서 기도하게 하고, 검교 공조 참의 최덕의(崔德義)를 보내어 저자도(楮子島)에서 화룡제(畫龍祭)를 행하였다.
>
> 임금이 승정원에 전지하였다.
>
> "예로부터 큰물이나 가뭄의 재앙은 모두 임금의 부덕한 소치였다. 이제 승도와 무당을 모아 비를 빌지만, 마음은 실로 편하지 못하다. 비록 비의 혜택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코 승무(僧巫)의 힘은 아니며, 다만 비를 걱정하는 생각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는 또한 기도나 제사를 그만두고 인사를 바로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문리(文理)를 조금 알므로 승무의 탄망(誕妄)함도 안다. 이제 도리어 좌도(左道)에 의지하여 하늘의 은택을 바라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
>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였다.
>
> "비록 옛날 성왕(聖王)의 정도(正道)는 아니지만, 신에게 빌지 않음이 없는 것도 또한 고사(古事)입니다. 이제 승도가 이미 모이고 공판(供辦)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조용히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임금이 말하였다.
>
> "나의 뜻도 진실로 그와 같다. 만약 조용히 하는 것이라면 경들이 맡아서 하라."[68]

1413년(태종 13) 태종은 가뭄이 계속되자 곳곳의 기우제 명소에서 제를 올리도록 하였다. 백악과 목멱, 한강과 저자도 등을 지정하면서 흥천사도 포함시켰다. 흥천사에서는 특히 조계종 판사 상형(尙形)에게 기우제를 전담시켰

68) 『태종실록』 태종 13년 7월 5일.

다. 그러면서도 승도와 무당 등에게 하늘의 은택을 기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를 하문하였다. 이미 하교한 후에 뜻을 묻는 의미 없는 대화였지만, 신하의 입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 듯하다. 즉 불교는 허망한 교리의 좌도이지만 비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모든 신에게 기도한다는 취지이다.

조선시대 불교 기우제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1481년(성종 12) 홍문관 부제학 이맹현(李孟賢, 1436-1487) 등이 흥천사에서의 기우제 설행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성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 그대들의 말은 매우 옳으나, 내가 어찌 부처를 좋아하여서 하는 것이겠는가? 또 전조(前朝) 때에 도둑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도 방어를 하지 않고, 먼저 소재도량을 차려서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도로 삼은 일과 견줄 것이 아니다. 정도(正道)로 말하자면 소격서·삼청단에서 비는 일을 꼭 할 것도 없을 것이다. 장의사(藏義社)에서 축수하는 재를 올리는 일도 어찌 부처를 아주 미덥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는가? 또한 부처도 신이 아니겠는가? 임금과 재상이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하늘에 사무쳐 비를 오게 하지 못하므로, 백성의 생활을 애달프게 여겨서 극진하게 다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하려는 것이니, 그대들의 말이 옳기는 하나 따를 수 없다.[69]

절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부처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부처 역시 신이므로 신에게 기도하여 가뭄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없애려는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불교 기우제를 폐지하기 직전인 1485년(성종 16) 6월에도 이러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70]

억불의 시대에서 불교 기우제가 설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부처도 신'이라는 이해가 전제되어 있었다. 즉 부처는 도교와 무속의 천신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하늘을 감동시켜 비를 내리게 하려고 절에서 기우제를 지낸다는 논리였다.

---

69) 『성종실록』 성종 12년 6월 29일.

70) 『성종실록』 성종 16년 6월 7일.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흥천사에서의 기우가 비록 정도는 아니나, 조종조로부터 행하여 왔고, 또 내가 즉위한 뒤에도 했었다. 이제 무녀를 시켜 비를 빌고, 비록 승도를 시켜 기도한다 하더라도 아마 무방할 것이다. (…) 내가 불도를 숭상해 믿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하여 은택을 기도하는 것이니 무방하지 않겠는가?'"

실록에 전하는 불교 기우제의 대부분이 무속의 기우제와 동반 설행되고 있음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한다.

① 태종 13년(1413)
가물면 신에게 빌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것은 옛날에도 있었다. 이제 가뭄이 이미 너무 심하였으므로 산천의 제사를 의당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중략) 이제 비를 비는 데는 마땅히 사람을 골라서 보내고, 또 승도와 무당을 모아서 기도하라.[71]

② 세종 17년(1435)
동방 청룡 기우제를 행하고, 또 승도와 무당에게 석척 기우제를 하도록 하였다.[72]

③ 세종 27년(1445)
무당과 승도를 모아 석척 기우제를 행하였다.[73]

이와 같이 조선의 불교 기우제는 무속과 동격시되면서 고려 기우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고려에서는 14개 이상의 도량과 재를 특정하여 기우제를 개설하였다. 도량의 의미와 특성에 맞는 경전을 강설하는 의례가 진행되었다. 이와 달리 조선의 기우제는 대부분 그저 '기우제', '승도기우제'[74]였다.

다만 『운우경』 즉 『대운륜청우경』을 강설하며 기우하는 사례가 있었다.

① 태조 7년(1398)
오랫동안 가물자 『운우경』을 흥복사에서 강설하게 하고,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자 기양법석을 연화사에서 베풀게 하였다.[75]

② 태종 16년(1416)
서천군(西川君) 한상경(韓尙敬, 1360-1423)을 보내어 흥복사에서 비를 빌었다.

71) 『태종실록』 태종 13년 7월 2일.
72) 『세종실록』 세종 17년 8월 6일.
73) 『세종실록』 세종 27년 5월 9일.
74) 『세종실록』 세종 22년 4월 25일.
75) 『태조실록』 태조 7년 5월 3일.

계를 받은 승도 1백 명을 모아서 『대운륜청우경』을 염송하였는데 개경사의 승도들이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3일 만에 마치고 승도에게 흰 저포(苧布)와 면포(綿布), 정포(正布)를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76)

③ 세종 원년(1419)

설우(雪牛)가 『대운륜경』에 의해서 다시 승려 7명을 데리고 7일간 기도하겠다고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많은 정성도 능히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거늘, 하물며 승려 7명이 어찌하랴. 절박해서 하는 것인 줄 아나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77)

조선의 불교 기우제에서 특정 경전이 명시된 사례는 이 『운우경』 뿐이다. 고려 기우제에서 『금광명경』, 『법화경』, 『화엄경』 등의 여러 경전이 활용된 경우와 비교하면 기우제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운우경』의 사례는 태조, 태종, 세종대의 조선 초기에만 국한되고 있다. 이 시기까지는 고려의 문화전통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던 것 같다. 이후의 기우제에서는 경전의 활용 사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기우제의 의례

조선의 불교 기우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숭덕대부(崇德大夫) 이정녕(李正寧)에게 명하여 흥천사(興天寺)에서 비를 빌었다. 흥천사의 기우제는 으레 내의원(內醫院)의 백단향을 쓰는데, 이날 좌부승지 이사순(李師純)이 향실(香室)의 향으로 봉하여 전하였더니, 임금이 노하여 두세 환자를 시켜 서로 힐난하고 책망하기를 거의 6, 7차나 하였다. 사순이 아뢰기를, "우부승지 이계전(李季甸)이 일찍이 이를 주장하였는데, 오늘 병으로 물러갔기 때문에 착오가 되었나이다." 하였다. (…) 곧 수양대군 이유(李瑈)에게 명하여 내향(內香)을 받들고 흥천사에 가게 하였다. 이유가 합장을 하고 몸을 흔들며 불탑을 돌고, 또 대감감찰(臺監監察) 하순경(河淳敬)을 강제로 역시 자기와 같게 하니, 순경이 늙고 겁이 난지라, 할 수 없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이유와 도승지 이사철(李思哲) 이하가 모두 승도와 더불어 한데 섞이어 주춤주춤 뛰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하였

76) 『태종실록』 태종 16년 5월 16일.
77) 『세종실록』 세종 1년 6월 2일.

다. 불당을 세운 이후로부터 매양 불사를 행함에는 늘 이와 같았다.[78]

1449년(세종 31) 6월 흥천사에서 진행한 기우제의 모습이다. 기우제를 감찰하는 사헌부의 관리들이 승도들과 뒤섞여 제에 참여하였음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두 가지의 기우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사찰의 기우제에는 국왕이 향을 하사한다는 점이다. 향은 종교와 신앙을 떠나 천신과 영령 등에게 기원을 올리는 데 필수적이다. 흥천사에는 관례적으로 내의원의 백단향이 제공되었다고 한다. 내의원은 국왕의 약을 조제하던 관서로 최고 품질의 약재를 조달하였다. 이곳의 백단향은 당연히 최상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의원의 백단향이 아니라 그보다 품질이 낮은 향실(香室)의 향으로 지급하자 세종이 크게 노여워하였다. 담당자를 문책한 후 기어코 수양대군에게 내의원의 향을 들고 직접 기우제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기우제의 의식에 가무(歌舞)가 있었다는 점이다. "합장하고 몸을 흔들며 불탑을 돌고, 승도와 더불어 한데 섞이어 주춤거려 뛰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하였다."라고 한다. 이때 참여한 승도는 140명 이상이었다.[79] 유자의 시선에서 이러한 모습은 말 그대로 '황당한 몰골'이었다. 불교의 각종 재의식에서는 범패와 범무(梵舞)가 중요한 절차이다. 불법의 진리를 소리로 표현하는 범패와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범무는 수륙재와 예수재, 영산재 등의 재의식에서 가장 기본이다. 조선의 불교 기우제에서 범패와 범무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우제의 보공재

조선의 기우제와 관련하여 특이한 재(齋)가 있었다. 즉 1449년(세종 31) 흥천사에서의 기우제를 마치고 보공재(報供齋)를 개설하였다고 한다.

①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오니, 근일에 보공재(報供齋)를 행하고,

78) 『세종실록』 세종 31년 6월 5일; 6월 16일.
79) 『세종실록』 세종 31년 6월 8일. "비가 조금 내리니, 여러 곳의 기우제를 정지하고, 석척기우제를 행한 내시 9인, 童男 77인, 흥천사에서 기우제를 행한 승도 140인에게 포물을 차등 있게 주었다."

다른 보답의 제사는 가을 뒤를 기다려서 행한다 하옵는데, 이 재는 겨우 기우제를 끝내고 곧 따라 행하면, 사전(祀典)에 어긋남이 있고, 또 비가 흡족하지 못하면 마땅히 다시 빌어야 하며, 만일 비를 얻으면 다시 이 재를 행하여 할 것이온즉 신들은 너무 모독이 될까 생각되오니, 청하옵건대, 행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 생각이 얕고 좁다고 여기노라. 이 재는 농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비록 열 번을 행하더라도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는가. 불가의 일은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니, 사전만 가지고 일례로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80]

②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종묘·사직·산천에 모두 기우제를 행하고 아직 보사제(報祀祭)를 행하지 않았는데, 먼저 흥천사에서 행하는 것이 실로 불가하옵니다. 지금 듣자 온즉 다시 기우제를 행한다고 하오니, 한편에는 기우제를 행하고 한편에는 보공(報供)을 하는 것이 더욱 온당하지 못하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사직에 곧 보사(報祀)를 행하는 것이 예문(禮文)에 실려 있는데, 행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만, 이 재(齋)는 다른 제사의 예와 다르다."하고, 허락하지 않았다.[81]

1449년 6월 5일 흥천사에서 기우제를 올렸다. 세종은 둘째 아들 수양대군에게 기우제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였다. 수양대군은 내의원에서 하사한 백단향을 불사르고 세종의 축문(祝文)을 대독하며 기도하였다. 140여 명의 승도가 사리탑을 돌며 예불하고 범패와 범무가 펼쳐졌다. 승도가 법당을 누비며 기우의례를 행하는 가운데 감찰을 위해 파견되었던 사헌부 관리들도 함께 어울렸다.

3일 후인 6월 8일 마침내 비가 내렸다. 흡족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단비였다. 세종은 이에 감동하여 흥천사의 승도 140명에게 포물을 하사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절에 보공재를 베풀도록 하였다. 즉 보공재는 말 그대로 '보답으로 공양을 베푸는 재'였다. 조선사회에서 기우제 이후 비가 내리면 참여자에게 보답하는 '보사제(報祀祭)'의 시행이 관례였다. 즉 보공재는 불교식 기우제에 따르는 보사제였다.

1451년(문종 1) 5월에도 흥천사에 보공재가 개설되었다.

---

80) 『세종실록』 세종 31년 6월 14일.
81) 『세종실록』 세종 31년 6월 16일.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흥천사의 기우보공재(祈雨報供齋)는 마땅히 길일을 가려서 행하여야 하나, 다만 법석(法席)을 베풀지는 말라."[82]

당시의 이름을 '기우보공재'라고 하였는데 재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명칭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석을 베풀지 말라는 구절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보공재에서는 법석을 베푸는 것이 상례이고, 2년 앞선 1449년의 보공재에서는 법석이 개설되었다는 말이 된다. 법석은 고승을 초빙하여 불법을 강의하는 자리이다. 억불의 시대에서 사찰에 기우제를 설행하고, 그 보답으로 보공재를 여는데 불법을 강의하는 법석까지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러기에 사간원과 집현전 등의 관리들이 앞다투어 보공재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보공재는 이와 같이 세종과 문종 때 각 1건씩 2건만이 확인되므로 통상적인 의례는 아니었던 것 같다. 보공재와 같은 별도의 의례는 아니지만, 기우제 후 비가 내리면 참가한 승도들에게 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83]

(4) 조선후기의 기우제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의 불교 기우제는 모두 국가에서 설행한 사례들이다. 국왕은 가뭄이 들 때면 지역과 신분, 종교와 신앙을 막론하고 기우제를 올리도록 하였다. 많은 사찰이 혁파되고, 승도는 강제로 환속 당하는 현실이었지만 살아남은 사찰은 이러한 국가와 관아의 명을 거부하지 않았다. 불교가 지닌 호국이념은 교권(敎權)이 몰락하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주효한 가치였다.[84]

더구나 중생구제의 큰 서원을 실현하려는 승도의 입장에서 가뭄으로 인한 중생의 고통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규모의 대·소를 떠나 지방의 많은 사찰에서 기우제가 설행되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82) 『문종실록』 문종 1년 5월 22일.

83) 『태종실록』 태종 5년 5월 23일; 『세조실록』 세조 3년 5월 28일.

84) 지금도 많이 전하는 사찰의 願牌에 '國王陛下壽萬歲 世子邸下壽千年'이라는 구절은 불교의 호국이념을 여실히 반영한다. 이러한 구절은 조선후기에 간행한 수많은 경전과 의식집 등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사찰의 기우제를 반증하는 유물이 괘불이다. 괘불은 야외에서 개최하는 각종 의식 도량을 장엄한다. 주로 수륙재, 예수재, 성도재, 점안식 등에 사용하였다. 1776년(영조 52)의 남장사(南長寺) 「불사성공록(佛事成功錄)」에 관아에 괘불을 옮기고 기우제를 지내다 비가 와서 괘불이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85] 아암 혜장(1772-1811)의 편지글에 지방에서의 기우제가 금지되었다는 내용도 있다. 즉 19세기 초에도 사찰의 기우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86] 조선의 국행 불교 기우제는 1485년(성종 16) 이후 사라졌지만, 사찰에서의 기우제 전통은 조선후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또 다른 사례가 조선후기 고승의 문집에 남아있는 기우제문이다. 지금까지 파악한 조선후기 기우제문은 모두 3건이다.

① 연담 유일(蓮潭有一, 1720-1799)의 「기우소(祈雨疏)」[87]
② 극암 사성(克庵師誠, 1836-1910)의 「기우제문(祈雨祭文)」[88]
③ 초엄 복초(草广復初, 19세기 후반 활동)의 「기우문(祈雨文)」[89]

②의 「기우제문」에, "삼가 시절 음식을 갖추고 몇 줄의 고달픈 말로 천지신명께 고합니다. (…) 바라건대 벼락과 비의 무리에게 천둥과 번개를 지휘하여 바람과 구름을 불어 모아 단비를 쏟아 부어 물이 도랑에 가득하게 하신다면, 파종하여 아직 나지 않은 곡식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요, 억조창생들이 보전하지 못하는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심으로 이와 같이 비니, 두터운 덕을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찰의 기우제문은 이와 같이 별다른 특징 없이 비를 기원하는 기도문이지만, 이를 통해 조선후기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가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 기우제의 사례를 살펴 보았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85) 이용윤, 앞의 글; 이영숙, 앞의 글, 49면에서 재인용.
86) 「무안현감 서준보고에게 올림」, 금명 보정 엮음, 『백열록』,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동국대 출판부, 2020, 223면. "베로 만든 북을 울리고 토룡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비는 일을 금하도록 하였습니다."
87) 蓮潭有一, 『蓮潭大師林下錄』, 한불전 10, 동국대 출판부, 1979, 254면.
88) 克庵師誠, 『克庵集』, 한불전 11, 동국대 출판부, 1992, 584면.
89) 草广復初, 『草广遺稿』, 한불전 12, 동국대 출판부, 1996, 308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불교 기우제는 고려에 비해 한층 간소화되었다. 14종 이상의 도량과 재로 설행되던 의식이 조선에서는 그저 기우제, 승도기우제라는 이름으로 획일화되었다. 조선 초기에 『운우경』을 강설하는 운우도량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일체 특정 이름의 도량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숭유억불의 기조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기우제에서 비를 기원하는 기도 자체만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조선의 기우제는 대부분 사찰에서 진행되었다. 흥천사에서의 기우제가 가장 많고, 흥복사, 연복사, 흥덕사, 회암사, 낙산사, 중흥사, 명통사 등이다. 고려 기우제가 궁궐의 건덕전, 문덕전에서 개설되었던 경우와 비교된다.[90] 기우제를 사찰에서 개설할 때도 신료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현실에서 궁궐 안에서의 불교 기우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기우제 이후 비가 내리면 국가에서 사찰과 승도들에게 보공재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하였다. 이는 고려의 불교 기우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일반 기우제에서 보사제라고 하여 노고에 보답하는 제의(祭儀)가 있었고, 이를 불교식으로 고쳐 재(齋)라는 이름을 붙인 듯하다.

조선의 불교 기우제는 1485년(성종 16)을 끝으로 더 이상 설행되지 않았다. 물론 지방과 민간 차원의 사찰 기우제는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국가행사로서의 공식적 의례는 사라졌다. 성종대는 세조의 숭불시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한편, 적극적인 유교진흥책이 추진되는 시기였다. 성종 스스로가 불교 기우제는 물론 여러 기우제를 하명하면서도, 기우제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고[餘事]' 인사(人事)를 잘 펼쳐 감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91] 즉 성리학적 덕치주의에 입각하여 천재(天災)가 있을 때마다 군신의 수덕(修德)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불교와 무속의 기우는 점차 사라져갔다. 한편 유교의 의례적 기능이 강화, 정비되면서 종묘와 사직이 국

90) 김용조, 앞의 글, 95-96면.

91) 『성종실록』 성종 17년 4월 18일. "기우는 지금 행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만 餘事일 뿐이니, 人事를 닦아서 感應이 되게 하는 것만 못하다."

가의 모든 제사, 의례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92] 국행 기우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4. 맺음말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기우제는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기우제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에서 비롯된다. 즉 기우제는 가뭄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즉각적이고 비정기적이며, 단발적으로 개설하였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만의 고유성이나 차별성을 드러내는 의례가 아니라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불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의례와 의식, 재 등을 발전시켜 왔다. 억불의 조선시대에도 수륙재, 예수재, 영산재, 천도재 등 많은 의례가 성행하였다. 의례의 발전은 의례집의 간행을 촉발하였고, 다시 의례집의 결집과 재편이 이어졌다. 『작법절차』(1634), 『범음집』(1713), 『작법귀감』(1826), 등이 대표적이다. 근대들어 여러 의식집을 집성한 『석문의범』(1935)의 간행까지 의례집은 꾸준히 정비, 재편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례집 어디에서도 기우제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우제는 '불교의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불교 기우제를 시대별로 검토하였다. 다양하고 많은 사례이지만 여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즉 기우제의 설행 주체가 국가와 사회라는 사실이다.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주관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우제가 지닌 기본 특성이 공공의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지만, 결과적으로 기우제는 불교의례가 되지 못하였다. 『대운륜청우경』이라는 기우제의 소의경전이 있으나 널리 유통되지 않았다. 『운우경』에 입각한 '운우도량'은 불과 4건에 그쳤다. 고려의 기우제에 등장한 14개 이상의 각종 기우 도량과 재의 존재, 그리고 기우에 활용한 다양한 경전은 불교 기우제가 정형화된 의례나 소의 경전을 갖추어야 하는 정식 의례로 정착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한다.

92) 김용조, 앞의 글, 132-133면.

국행으로서의 불교 기우제는 1485년(성종 16)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설행되지 않았다. 국가적으로 기우의례를 정비하면서 더 이상의 불교 기우제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을 내세우고 이단이라며 불교의 의례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이를 달리 보면 불교 기우제 자체의 효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수륙재가 억불의 사회에서 국행으로 계속되면서 17세기 초까지 유지되었던 사실은 그만큼의 효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93] 그러나 기우제는 그렇지 못했다.

불교 기우제는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맥락을 같이한다. 고려시대까지 불교의 성행 시기에는 기우제가 중시되면서 다양한 명칭으로 사찰은 물론 궁궐에서도 개설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오직 사찰에서만 가능하였다. 그것도 신하들의 반대와 저항을 물리치고서야 진행할 수 있었다. 조선의 기우제는 불교식이 아니어도 유교식, 무속식, 도교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이러한 대체 가능한 의례를 굳이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성종대 이후 국행의 기우제는 자취를 감추었고, 지방과 사찰에서만 드물게 설행되었다.

불교의례는 사상과 신앙 등 종교의 본질을 행위로 표출할 때 생명력을 지닌다. 그런데 기우제는 이러한 종교의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한국불교사의 한 전통으로만 남게 되었다.

93) 한상길, 「조선전기 수륙재 설행의 사회적 의미」, 『한국선학』 제23호, 한국선학회, 2009, 699-700면.

▮ 참고문헌

『고려사』, 『동국이상국전집』, 『동문선』, 『문종실록』, 『삼국유사』, 『서하선생집』, 『성종실록』, 『세조실록』, 『세종실록』, 『일본서기』, 『태조실록』, 『태종실록』.

克庵師誠, 『克庵集』, 한불전 11, 동국대 출판부, 1992.
蓮潭有一, 『蓮潭大師林下錄』, 한불전 10, 동국대 출판부, 1979.
草广復初, 『草广遺稿』, 한불전 12, 동국대 출판부, 1996

고익진, 『한국 고대 불교 사상사』, 동국대 출판부, 1989.
금명 보정 엮음, 『백열록』,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동국대 출판부, 2020.
김상현, 「고려시대의 호국불교연구—금광명경신앙을 중심으로」, 『학술논총』 제1집, 단국대, 1976, 193-224면.
김용조, 「조선전기의 국행기양불사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9.
김용헌, 「조선왕조실록에서 본 조선시대의 강수 기우제와 기청제, 우전, 서리 및 안개」,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1996.
김현정, 「조선후기 사찰건축의 용신앙 의장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1.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문상련(정각), 「묘지명을 통해 본 고려의 경전신앙」,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6권 1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20, 5-29면.
백순천, 「조선초기 흥천사의 조영과 역할」,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1.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부, 1994.
이능화, 『역주 조선불교통사①』 동국대 출판부, 2010.
이영숙, 「조선후기 괘불탱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3.
이용윤, 「불사성공록을 통해 본 남장사 괘불」, 『상주 남장사 괘불탱』,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6, 2002.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2』,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5.
_____,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4, 고려편 3』,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2』,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5.
채미희, 「고려시기의 국행 기우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5.
한상길, 「조선전기 수륙재 설행의 사회적 의미」, 『한국선학』 제23호, 한국선학회, 2009, 671-710면.
홍윤식, 「불교행사의 성행」, 『신편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2002.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kabc.dongguk.edu.

【Abstract】

Rituals for Rain in the Korean Buddhism

Han, Sang-Ki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rituals for rain of Korean Buddhism. The study of rituals for rain can be a meaningful material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Korean Buddhism and to examine how Buddhism responded to the requests of the state and society. In the historical process of Korean Buddhism, rituals for rain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until now. The reason arises from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rituals for rain. In other words, the rituals for rain was carried out irregularly and singlely in a short period of time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drought. From a Buddhist point of view, it was not established as a Buddhist rituals because it was not a rituals that revealed the uniqueness or differentiation of Buddhism.

The Buddhist rituals for rain is in line with the historical process of Korean Buddhism. During the reign of Buddhism until the Goryeo Dynasty, the rituals of rain was held in various places, including temples and palaces. However, it was only possible in temples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was also possible to proceed only after defeating opposition from bureaucrats. Buddhist rituals are vital when expressing the essence of religion, such as thought and faith, as acts. However, the rituals for rain did not have the essence and function of this religion, and ended up as a tradition of Korean Buddhist history.

Keywords: Rituals for Rain, Buddhist rituals for rain, Buddhist rituals, the Sutra of Golden Light Rituals, the Lotus Sutra Rituals, hanging Buddhist painting, Heungcheon-sa temple.

접수일: 2020.09.23. ‖ 심사일: 2020.10.07. ‖ 게재확정일: 2020.11.09.

* Assistant professor, Korean Buddhist Research Institute, Dongguk Univ.